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회로 모입니다. 각 동회 활동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7월 수요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호세아서' 를 강의합니다.

하반기 선교회장단 교육이 다음 주일(17일) 일영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봉사할 일을 한 가지 정하고 그 일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맘을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박혜경a조항미 김윤정 이은주 김민화 김정우 백묘현
 7/17,24 식당봉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립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오늘설거지봉사 : 이건설 신영신 안 현 서수진
 다음 주 설거지 : 김기성 이정림 박권동 박범희
 새 교 우 : 강세기(4남) 이소애(6여) 허명선(5여)
 떡, 커피 대접 : 권채영 (어머니 장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길만 살필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 지혜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총기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젊은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단체로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무시와 경멸의 눈빛은 거두어들이고 이해와 존중의 눈빛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0:30,31 인도자
- ♣ 교 독 문 41. 시편97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442(통499).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함께
- ♣ 성경봉독 I. 출17:1-13 최문희 선생
 II. 벧전 3:8-14 박두석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 손성현전도사
 II. 좋은 열정, 나쁜 열정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손성현 안경아 한완식 임정자 강순배 김성한 조영순
 김일랑 이은옥 김정애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서원금 김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김명희 정재정 정한구 왕영순 한상경 임영 정경례
 김수진 정연희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한인철 조운숙 박진혁
 무명2

월정헌금:

김경수 김명순 이교영 김미순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상규 서정순 송동준 김진경 윤주원 최윤선 이봉배 이인웅
 오송경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조순덕 조은나 조재현 주경진 이윤정
 정재웅 정미경 홍복선 김범진 김미현 권미정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김종락 박영신 강순배 전 용 신진식 변혜정 장묘심
 배삼순 권호진 정종삼 배순미 문복순 최현선 송남우 황경화 김중수
 이순정 임선임가족 무명6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양재성 임미심 장원호 박성희 무명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최경미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곽혜자
	안정숙	진정숙	김혜권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안홍숙
	정영선	이현숙	김희우	정영선
	이영란	박미영	야외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심상숙	강인숙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건식	교회	교회

장마의 추억

강정식

어릴 적 장마는 긴 기다림이다
 물 새는 지붕과 벽면 곰팡이가
 전장의 기념비 같은 커다란 지도를
 상처처럼 남겨
 고단하게 살아가던 궤적으로 쌓였다

우묵 배미 안마당
 정강이 넘게 흙탕물이
 문지방에 찰랑거릴 때쯤
 붉은 기와 용마루에도 틈이 자라서
 하늘이 보이고
 천장을 적시며 영토를 넓혀가

물받이 그릇이
 방 안 가득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강가로 물 구경 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 양	449(통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며 살고 악한 일에는 마음 씀을 줄이며 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날, 평화의 날을 꿈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열심히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선한 열매 맺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악한 생각과 일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문영혜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박영실 선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김윤정 집사

7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윤성종 최숙화 박성실 김윤정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숲의 제왕

여행 제목부터가 신선한 느낌이다. 오클랜드를 떠나 서북쪽 웨스트 코스트 카우리 나무숲을 다녀오는 1일 여행 출발에 앞서 인솔자 멘트가 인상적이다. “오늘 함께 떠나는 자연 기행, 에코 트래블에 오신 분은 열두 분으로 단출하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 여행 제목 테마는 '열두 사도와 크라이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클랜드 북쪽 방향 1번 모터웨이를 따라 달리니 새로운 연녹색 세상이 하나씩 열린다. 간간이 뿌리는 늦가을 비마저도 친구려니 벅하며 지나다 보니 햇살도 반짝 비추고, 무지개도 살짝 얼굴을 내민다. 3년에 걸쳐 만든 오레와-푸호이 터널, 보헤미안 마을 푸호이, 자연 해양 명소 워크워스, 토요일 파머스 마켓 마카타니, 농장 갑부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원지 웰스포드, 카우리 박물관 마타코헤, 고구마 주산지 다가빌, 카우리 삼림지 와이포우와, 평화스런 하버 전망지 호키앙아... 오클랜드에서 시외로 한 시간만 벗어나도 이리도 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에서 “여행이란 길 위의 학교다”고 강조한 모양이다. 그 학교에서 단순하게 사는 삶, 없어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잘 배워보란다. 열두 사도와 크라이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중엔 일속에 푹 젖어 살고, 주말엔 이렇게 교외로 훌쩍 떠나 보니 참 좋다. 비에 젖은 창 밖 풍경이 고즈넉한 가을 동화 같다. 도로변에 서있는 갈대밭도 평화다. 한 폭의 수채화를 내다보고 있는가. 대자연이라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니 그 맛이 살아 움직인다.

자연과 마주하는 여행, 일명 ‘에코 트래블’이다. 오늘이 바로 그런 여행이다. 뉴질랜드 수목 중에서 최고 품격과 역사를 지닌 나무 카우리를 집중탐색해 보는 시간이다. 오클랜드에서 한 시간 반 가량을 달려오니 마타코헤에 뉴질랜드 최대 카우리 박물관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뉴질랜드 초기 개척자들(1850년대부터)의 생활상, 카우리 나무 벌목 과정, 목재 다루던 장비 기구들, 카우리 목재 제품 등등...

뉴질랜드 토착 상록수로는 카우리, 리무, 토다라, 미로 등의 하드우드가 대표적이는데 카우리가 단연 으뜸이다. 영국인들의 뉴질랜드 정착 역사는 200여년에 불과하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카우리 나무의 역사를 헤아리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뉴질랜드에서 최대 크기의 카우리 나무를 박물관 벽에 실재 나이테 크기로 그려 놓았는데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일명 자이언트 카우리 고스트! 역사상 최고 최대의 카우리는 직경이 8.54m 로 뉴질랜드 코로만델 템즈에 있었다(1870

년대)는 기록이 있다. 현존하는 카우리 나무 중 가장 큰 것은 뉴질랜드 북섬의 서북쪽 호키앙아, 와이포우아 산림 공원에 있는 타네 마후타(마오리 말: 숲의 제왕)로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이름 그대로 ‘숲의 제왕’ 답다.

높이 치솟은 바위 산 같다. 둘레 13.8m, 직경 4.4 m, 하늘을 찌르는 키가 51.5m이다. 추정 수령이 2천년이라고 나무 앞 안내판에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카우리 나무가 예수님 연세와 동갑이라고 했고, 오늘 여행 제목 테마를 '열두 사도와 크라이스트'로 정했다고... 숲속의 제왕 타네 마후타 카우리 주변에도 거대한 크기의 네 자매 카우리가 사이좋게 딱 버티어 서 있고, 여러 다른 카우리도 군데군데 우뚝 선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치 예수님과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전에 왔을 때보다 새삼 다른 느낌이다.

우리네 인생 80에도 우여곡절, 희로애락에 흔들릴 때가 그 얼마나 많은가. 그 장구한 2000여 년에 걸친 세월에 엄청난 천재지변을 다 겪으면서도 침묵하고 서 있는 저 위용과 당당하고 의연한 품새... 숲속의 제왕답다. 한 자리를 수 세기 동안 지키며 묵묵히 서 있다 보니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다. 자기 여건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지는 모습을 마음에 새겨본다.

카우리 나무는 높은 강도와 뛰어난 내구성으로 매우 견고하여 선박 건조, 주택, 가구, 조각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 또한 카우리 껍질이 손상되거나 바람에 가지가 부러질 때 진액이 흘러나와 그 부위를 보호하며 나무가 썩거나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카우리 나무에서 나오는 진(송진)이 굳어서 응고된 것이 호박이다.

고급 공예품이나 장신구 재료로 쓰이는데 카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뉴질랜드 최고의 호박은 석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채굴한 것으로 4천 3백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바다 속의 진주나 산속의 카우리나 몸에 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액이 멎쳐지니 보석이 되어 버렸다. 우리 인간도 살아가며 때로는 처절한 삶의 고통을 감내하며 속으로 울고 녹아내린 감정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난 이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야외 드라이브도 할 겸 한 번씩 와서 그저 서 있다만 가도 좋겠다.

과거 역사와 접철된 살아있는 환경 생태계를 둘러보는 여행은 참 많은 것을 깨우쳐 준다. 어느 평화 여행가의 말처럼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자연 환경,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바로 평화다. 가끔씩 바쁠 것 도 없는 때어둔 시간을 가지며 푸른 초원을 보면 그윽하게 가슴에 느껴지는 평화와 편안함이 있어 좋다. 자연과 대지는 우리에게 온갖 책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에코 트래블(Eco-Travel)의 선물이다.

- 백동흙/ 뉴질랜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